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JUNE
Vol.233



**Find Opportunity
Everywhere
with KPMG!**

**당신이 꿈꾸는 미래
삼정KPMG**

삼정  KPMG

COVER STORY

삼성KPMG에서 성장을 이뤄주세요!



Everyone a Leader!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
- 토니 셰이 (자포스 창업자)

아침에 눈 뜨면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
일상 속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곳,
배려와 소통으로 성장을 이뤄가는 곳,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갈 수 있는 곳,

삼성KPMG는 인재존중 문화를 우선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People First!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삼성KPMG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주세요!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ONTENTS

JUNE 2022 Vol.233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People First 16

화합과 소통의 장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성료!

채용특집I 삼성스토리 22

People First! 인재를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삼성KPMG에서 미래를 열어주세요!

채용특집II 삼성피플 24

MZ가 말하는 삼성KPMG는?

KPMG Story 26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삼성인에게 '진심'은 어떤 의미일까?

이동규의 두줄칼럼 28

겸손과 교만

Samjong News 30

'2022 Partners' Workshop' 개최 외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

06 Market Reader

배터리 순환경제...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급부상, 어떤 준비 필요한가?

08 Team Story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잇는 가교, 공공인프라팀

10 Client+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마법, 네오위즈

12 Expert's Advice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어떤 준비 필요할까?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04p



16p



08p



24p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을 둘러싼 M&A(인수·합병)는 코로나19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도 꾸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왔다. 2025년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 규모가 23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지금도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

○ 기업들의 M&A 격전지가 된 폐기물 처리업 시장

폐기물 처리업 시장의 M&A는 2010년 JP모건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해 EMK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기업가치 급등을 선제적으로 전망한 사모펀드(PE)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에 들어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와 기업의 컨소시엄이 폐기물 처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운영 노하우를 확보한 기업이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왜 기업은 폐기물 처리업에 뛰어들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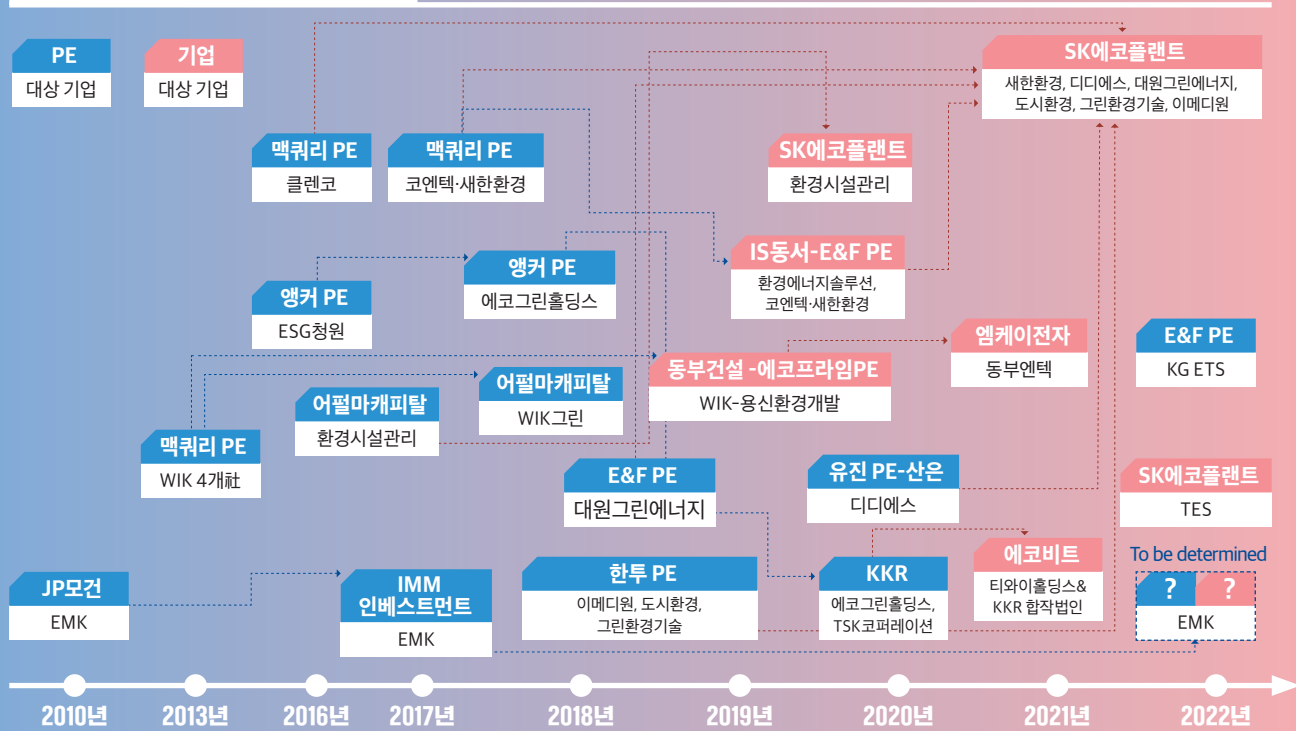
첫 번째 이유는 폐기물 처리 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35.7만 톤에서 2020년 53.4만 톤으로 약 10년 새 하루 평균 17만 톤 이상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 소득 수준 증가와 비대면 산업 발전이 폐기물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및 주택 개발 활성화가 더해져 폐기물 산업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이다.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가 처리시설(자가소각·매립시설)이 부족해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처리시설의 부족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과 환경 문제로 인해 신규로 처리시설을 설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280% 상승했다.

세 번째는 수익성 개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 처리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급 부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은 기업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은 재고관리가 필요 없고 현금 흐름이 견고해 매수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폐기물 산업의 주요 M&A



Source: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Note: 해당 기간 주요 M&A만을 정리

네 번째는 폐기물 에너지화의 기반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궁극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폐기물 처리업을 발판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에 진출하고,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미래 에너지원 창출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종합 환경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 환경경영 추진체계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기업은 ESG 평가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 환경투자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폐기물 처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폐기물 처리 산업은 과거 영세 기업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소수 기업 위주로 대형화 및 계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 분야는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반폐기물 혹은 의료폐기물 등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중소형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대거 인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사업의 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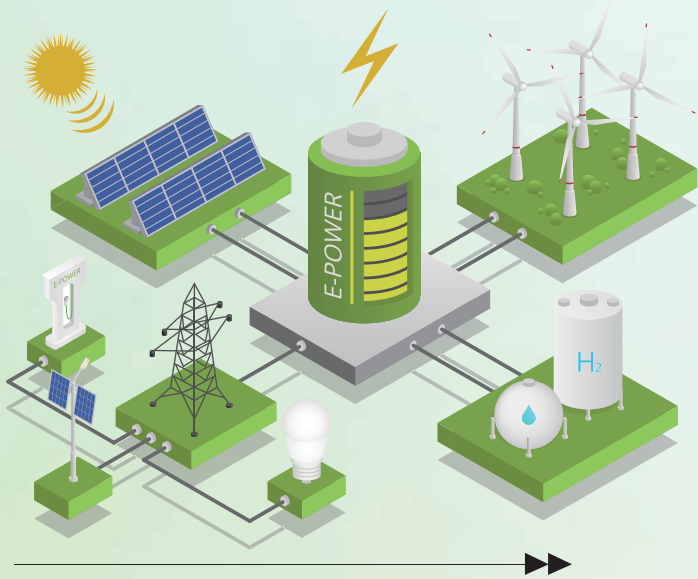
체인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사업의 방향을 재활용, 에너지화까지 확장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넘어 종합 환경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ONTACT US

Deal Advisory4본부
이동근 전무
Tel. 02-2112-7764
E-mail. dlee@kr.kpmg.com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배터리 순환경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급부상, 어떤 준비 필요한가?

2030~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출시와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증가하고, 원재료 유치 경쟁이 강화되면서 '배터리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확대, 각국의 정책 현황은?

배터리 순환경제는 폐배터리 내 금속을 추출하여 신규 배터리 제조에 활용 또는 판매하거나 폐배터리를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재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이때, '재활용'은 배터리를 셀 단위에서 분해 후 코발트, 리튬 등 희유금속을 추출하여 신규 배터리 제조에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벨기에의 유미코아(Umicore), 국내에서는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재사용'은 배터리 모듈이나 팩을 일부 개조하거나 형태 그대로 최초 사용 용도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모듈이나 셀을 해체하는 과정이 없어 안전하면서도 추가 비용이 적어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들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검토 중이다.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씩 성장하여 2040년 573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제 막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먼저, EU에서는 폐기물 처리 지침(Directive 2006)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배터리 규제안을 2020년 12월 발표했다. 미국 역시 폐배터리 관련 인프라 및 기술개발에 투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국가 주도의 폐배터리 관련 법안을 만들어와 한·중·일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 폐배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새롭게 부상하는 폐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는 ①비즈니스 모델 수립, ②폐배터리 선점, ③재활용 기술 경쟁력 확보이다. 먼저, 모빌리티 기업의 경우 현대차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배치하여 에너지 네트워크와 통합하기 위해 로드맵 수립 후 ESS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닛산은 스미토모(Sumitomo)와 협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지게차, 골프 카트 등 기계용 배터리로 재제조 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했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 KST모빌리티와 협업하여 배터리를 확보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ESS로 재제조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때, 폐배터리 선점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들은 다양한 기업들과 리사이클링 협약 및 MOU를 맺어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경로를 다각화하는 중이다. 한편, 건설이나 통신 인프라 등의 기업들도 폐배터리 순환경제 비즈니스에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 참여하

폐배터리 시장의 핵심 이슈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토대로 본 3가지 시장 선점 전략

[핵심 이슈]	[기업별 대응 전략 기반 시사점]	[시장 선점 전략 방향]
① 배터리 순환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유리할까?	대체로 유사한 비즈니스 영위, 기존 역량 레버리지가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재사용은 ESS, 배터리 재활용은 원자재 추출 후 판매 및 이를 활용한 배터리 소재 생산에 집중됨 신규 시장에 진출 시, 기존 핵심 역량을 고려하여 접근 필요 	ESS, 원자재,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집중하되, 각 사의 기존 핵심 역량을 고려
② 폐배터리를 어떻게 선점(확보)할 것인가?	폐배터리 대량 확보(배터리 리스 등) 전략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전기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경우, 최초 배터리 판매 시 해당 (폐)배터리를 다시 회사의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Battery Ownership 모델을 설계, 구축
③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관련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상용화 시 주요 모멘텀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들은 자체 개발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확보 중 '23년~'25년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본격 가동 시기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주요 모멘텀으로 고려해야 함 	2023~2025년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본격 가동 시대 대비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인 에너르마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고, 중국 차이나타워는 FAW, 동펄, BYD 등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들과 전략적 협약을 통해 폐배터리를 구매한 후 배터리 제조사에서 재제조하여 기지국 내 ESS로 재사용하고 있다.

● 그렇다면, 기업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 방향은 세 가지로 도출된다. 먼저, '배터리 순환경제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유리할까?'라는 질문에는 각 사의 기존 핵심 역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할 수 있다. 현재 모빌리티 기업은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ESS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배터리 원재료나 소재 시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폐배터리를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폐배터리 대량 확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리티 및 이차전지 기업의 경우 최초 배터리 판매 시 해당 폐배터리를 다시 회사의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오너십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BMW와 같이 배터리 소유권을 개인이 보유하고 향후 회사가 재구매하는 방법부터 닛산,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리스를 통해 특정 회사가 배터리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혹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같이 B2B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사가 배터리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법 등 소유권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상용화 시 주요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 노스볼트(Northvolt)는 2023년 재활용 물질 기반 배터리 생산을 선언했고, SK이노베이션은 2025년부터 해외 폐배터리 공장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제 돌입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상용화를 위한 마일스톤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별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제조사, 자동차 업체 모두가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뛰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원재료 가격 증가와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배터리 순환경제는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CONTACT US

Deal Advisory6
홍민성 상무
 Tel. 02-2112-3564
 E-mail. minsunghong@kr.kpmg.com



경제연구원 임이슬 책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있는 가교, 공공인프라팀

지난 4월 1일 삼정KPMG는 공공인프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기반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Deal Advisory2본부의 공공인프라 인력을 Deal Advisory6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국내외 인프라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문을 수행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교 역할을 해내는 공공인프라팀을 만나본다.

○ 스마트시티 경쟁력 제고 위해 'ESG' 고려해야

최근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와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며 등장한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으로 디지털,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수요와 경쟁력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경쟁력 비교를 위한 다양한 지표가 등장하고 있다. 경쟁력 지수를 분석하는 기관 및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과거에는 디지털 및 하드웨어 경쟁력 위주로 지표가 산정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ESG 요소의 중요성과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마트시티의 개발과 ICT 인프라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인덱스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ESG 관점에 입각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스마트시티 인덱스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어, ESG를 고려한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개발 주체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ESG 관점에 입각한 개발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폭넓은 경험과 남다른 노하우로 공공과 민간의 Win-Win 이끄는 팀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와 공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민관협력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 간의 공공성 및 수익성 차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공공인프라팀은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로 양측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여 상호 Win-Win 하는 사업구조화 방안을 제안하고, 조율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단계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투자유치 자문 등에 대해 폭넓은 자문 경험, 전문인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계별 끊임 없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경험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인프라팀은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스마트시티 관련 자문 업무 시 ESG 관점을 적용한 사업전략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재무적·기술적·법률적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발주 용역에 대한 수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Team Story



공공인프라팀의 주요 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와 인프라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업타당성 검토

신규/기존 프로젝트 대상으로 예상수입, 사업비용, 현금흐름, 금융비용 등을 추정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성공적 완수에 필요한 전략, 운영계획 및 예산수립 지원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금융 자문 서비스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금융구조를 분석하고 최적의 재원형태를 발굴, 필요한 자금을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인프라·부동산 시장의 'Go-To Team'으로!

공공인프라팀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또한 인프라 개발에 파생되어 나오는 역세권 부동산 개발 등 민간 프로젝트들의 발굴을 통해 고객군을 확대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Deal Advisory2의 인력이 Deal Advisory6본부의 공공인프라팀에 통합됨에 따라 채권 매각 등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된 역량으로 국내외 인프라·부동산 시장에서 'Go-To Team'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공공인프라팀에 대해 소개한다면?

김효진 본부장

hkim68@kr.kpmg.com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된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 국가 과제 앞에 향후 인프라 시장은 급변할 것입니다. 우리 팀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공공기관을 위한 충실한 자문 역할,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프라 시장 내 이슈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정유철 이사

yuchuljeong@kr.kpmg.com



“해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KIND 및 수출입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 검토 업무뿐만 아니라, M&A, 투자유치 검토 업무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팀은 공공기관 외에도 자연스럽게 민간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인프라팀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 전문 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희준 부장

hryu1@kr.kpmg.com



“인프라 특성상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해외 신흥국의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 전문성 등의 이유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팀은 민관이 협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을 모두 검토하면서 상호 타협점을 찾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팀 통합으로 인프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Cross-Team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네오위즈 판교타워 전경



네오위즈 판교타워 카페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마법, 네오위즈

게임 제작사인 네오위즈는 자체 개발을 통한 우수 IP(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재력 있는 개발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지난 3월 3일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21 코스닥 공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자체 제작 IP 확대와 글로벌 성과 창출 확대

네오위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제작 IP 확대를 위한 IP 가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부터 개발사로서의 체질 개선을 시작으로 PC와 모바일, 콘솔 등 플랫폼별로 ‘블레스(Bless)’, ‘브라운더스트(Brown Dust)’, ‘디제이맥스(DJ MAX)’ 시리즈, ‘킹덤 오브 히어로즈(Kingdom of Heroes)’, ‘기타소녀(Guitar Girl)’ 등 자체 제작 게임들을 시장에 선보였으며, 투자를 통해서도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퀘스트게임즈’와 ‘슈퍼플렉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드루와전전’, ‘데스나이트 키우기’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으며, 2021년에는 스티키핸즈, 겐플리트에 이어 하이디어까지 인수·합병하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IP를 확보했다. 특히, 하이디어가 개발한 모바일 힐링 게임 ‘고양이와 스프(Cats & Soup)’는 현재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500만 건을 기록했고, 일일 이용자 수(DAU) 역시 12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유저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인디게임 라인업 확대 및 플랫폼 확장

네오위즈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춘 개성 강한 IP를 적극 발굴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 선보이고 있다. ‘스컬(Skul)’, ‘메

탈유닛(Metal Unit)’, ‘블레이드 어썰트(Blade Assault)’, ‘사망여각(8Doors)’, ‘댄디 에이스(Dandy Ace)’, ‘산나비(SANNABI)’, ‘언소울드(Unsouled)’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인디게임들을 정식 및 얼리 액세스 단계로 출시했다. 이들 게임들은 PC 출시를 시작으로 PS4, Xbox, 닌텐도 스위치 등 다양한 콘솔기기로도 출시 중이다.

한편, 네오위즈는 인디게임 퍼블리싱에서 나아가 코로나19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인디 게임사들을 지원하고자 온라인 인디 게임 페스티벌 ‘방구석 인디 게임쇼(BIGS)’를 2020년과 2021년에 개최했다. 2년 동안 400여 개의 특색 있고 다양한 장르의 국내 게임사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블록체인 기반 P&E 게임 선보여

네오위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플레이 투언(P&E, Play & Earn) 게임을 선보였다. 이

를 위해 ‘크립토 골프 임팩트(Crypto Golf Impact)’와 ‘브라운더스트(Brown Dust)’가 글로벌 티징 사이트를 지난해 12월 10일 오픈했다. 네오위즈가 선보이는 P2E 게임들은 블록체인의 전문 계열사 네오플라이의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플(NEOPIN)’ 기반으로 서비스된다.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며 게임 코인 획득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게임 코인은 네오플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활용해 게임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보유한 네오플 토큰을 각 게임 코인으로 교환하여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네오위즈는 자사 게임 외에도 투자사, 개발사 등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게임에 네오플 경제 시스템을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28일 공식 출시된 크립토 골프 임팩트는 네오위즈 스포츠 모바일 게임 골프 임팩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으로, 네오플을 통해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한 글로벌 156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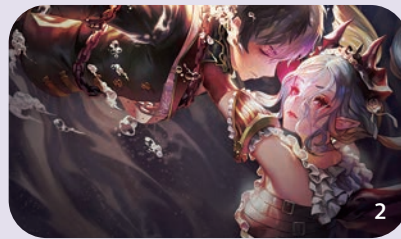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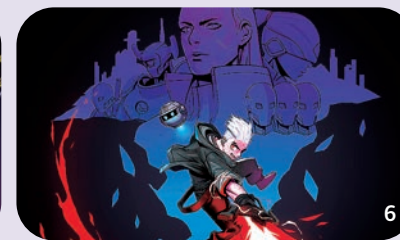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누적 이용자수 500만 명을 기록한 턴제 전략 RPG 브라운더스트 역시 지난 5월 13일에 5주년 기념 업데이트와 함께 글로벌 버전 브레이브 나인에 P&E 시스템을 적용했다.

○ 2023년까지 총 10종의 신작 출시 예정

네오위즈는 2023년까지 PC,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총 10여 종의 신작 라인업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작으로 손꼽히는 ‘P의 거짓(Lies of P)’은 정통 소울라이크 싱글 액션 RPG로 최근 인게임 플레이 영상 공개 후 총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고전 피노키오를 각색해 독자적인 IP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소울라이크에 충실한 심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선보일 예정이다.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동시 출시되며, 2022년 하반기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또 다른 신작은 오픈 월드 생존 슈터 게임 ‘프로젝트 A.V.A.’이다. 기존 아바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새로운 게임으로 개발 중이다.

‘브라운더스트’와 ‘킹덤 오브 히어로즈’ IP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 된다. ‘프로젝트 클래식’, ‘프로젝트 BP’가 브라운더스트 IP로 개발 중이며, 킹덤 오브 히어로즈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SS’ 등 신작 모바일 게임들은 또 다른 전략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기반으로 한 미공개 모바일 신작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START

LEVEL				OPTIONS
				
				

1. 고양이와 스프
2. 브라운더스트
3. P의 거짓
4. 크립토 골프 임팩트
5.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
6. 블레이드 어썰트
7. 언소울드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어떤 준비 필요할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3월 15일에는 유럽이사회에서 규정을 대체로 수용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향후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 박원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CBAM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의 직접배출 탄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은 EU의 세수 확보 수단 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무역장벽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EU에서 강조하듯 CBAM이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 방안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6월 최종 법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합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원안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미리 숙지하여 2023년 도입될 CBAM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Q2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나요?

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안에서 제안한 5가지 품목 이외에 화학물(수소 등) 및 폴리머(플라스틱류)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재배출량의 정의를 직접배출량 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생산의 업스트림(원자재 부품)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안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의 전환기를 가진 후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제안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환기 및 탄소세 부과 시기를 1년 단축시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를 전환기로 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부

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원안은 2035년까지 EU-ETS(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무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36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상할당 비율을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Q3 기업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더 강화된 개정안의 적용범위 및 도입 스케줄, 그리고 올해 안으로 발표될 최종 법안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2년간의 전환기 동안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제품별 탄소량을 산출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배출 관리, 측정, 배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시설 및 설비에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탄소배출을 고려한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재편 전략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SCG 박원 상무

Tel. 02-2112-0823

E-mail. wpark@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3월 21일 게재된 한국경제 [삼정KPMG CFO Lounge]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더 강화됐다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조어를 알려주는 ‘맛있는 경제’. 이번 호에서는 식물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과 새로운 사이버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1분기에 벤처투자, 펀드결성이 나란히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고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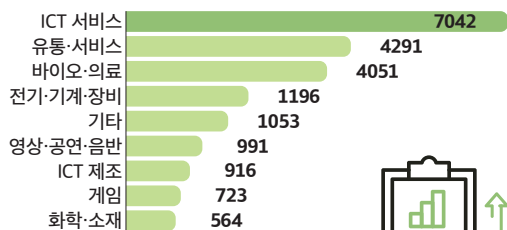
1분기 벤처투자·펀드결성 나란히 2조 돌파 ‘역대 최대’



1분기 벤처투자자 펀드결성 금액이 나란히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이 크게 늘었고, 민간 펀드 출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벤처투자 실적 2조 827억 원, 펀드결성 실적 2조 5,66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자와 펀드결성 모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모든 업종 투자가 늘었고, 투자 주력업종인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자의 73.9%가 집중됐다. 100억 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기업도 증가했다. 1분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52개 사로, 전년 동기 24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분기 업종별 벤처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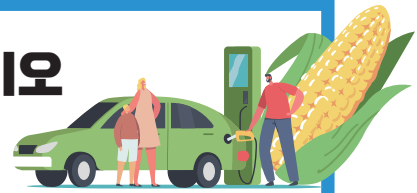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화이트바이오 (White Bio)



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산업을 총칭한다. 특히 탄소 기반 화학 물질 대신 식물 자원 등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배출량이 낮아 탄소 저감·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에 있어 유용한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어드روی트 마켓리서치에 의하면 글로벌 화이트바이오 시장은 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 2,378억 달러(한화 약 281조 원)에서 2028년에는 약 5,609억 달러(약 662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K케미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화학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와 ESG 경영에 편승, 화이트바이오 사업에 잇따라 탑승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 (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사이버 보안 모델로, 내부에 접속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검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업 내부의 디지털 연결이 복잡해지고 보안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접속한 사용자를 포함해 모든 사용자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검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오픈뱅킹과 관련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도입하고,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안점검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화합과 소통의 장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성료!

16

채용특집I 삼성스토리

삼성KPMG에서
미래를 열어주세요!

22

채용특집II 삼성피플

MZ가 말하는 삼성KPMG는?

24

KPMG Story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삼성인에게 '진심'은
어떤 의미일까?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겸손과 교만

28

Samjong News

'2022 Partners' Workshop'
개최 外

30



챔피언십 첫 우승컵의 주인공은? Tax5·6본부! 화합과 소통의 장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성료!

숨 가쁘게 달려온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이 지난 5월 3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본부 예선전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된 16강, 8강, 4강을 걸쳐 최종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를 마무리하며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었다.
지금부터 챔피언십 현장을 대공개한다.



People First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결승전 & 3, 4위전 참가 선수들과 함께

● **응원하며, 즐기며, 화합을 나는 축제의 시간!**

삼정KPMG 첫 골프대회 '챔피언십'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생활 속 재미와 즐거운 법인 문화를 위해 열린 '삼정KPMG 제1회 챔피언십'은 MZ 세대의 인기 스포츠인 골프를 Director 이하의 직원들이 동료들과 한 팀을 이뤄 진행한 골프대회이다. 필드에서 열렸던 결승전 및 3, 4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됐다. 본 대회를 위해 본부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대표 선수를 찾기 위한 본부 내 예선 경기를 치르며, 총 32개 본부 128명의 출전 선수를 선발했다. 이후 실시간 라이브로 조 추첨식을 진행하며, 공정하게 대진표를 확정 지었다. 확정된 대진표에 따라, 8개 그룹이 지난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에 3차례에 걸쳐 예선 경기를 진행했다. 예선전은 우승팀 1점, 무승부 0.5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본부들이 16강에 진출했다. 예선 경기에서 참가 선수들은 그간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했다. 진봉근 S.Analyst(DA6), 서정재 Consultant(Digital Tech), 이동욱 S.Manager(ICE1), 김민규 Analyst(DA2)가 이글을, 류정연 S.Senior(Tax3)는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멋진 경기를 선사했다.

불꽃 튀던 예선전을 모두 마친 후, 5월 16일에는 16강 토너먼트 경기가 열렸다. 16강부터는 대회의 긴장감과 흥미를 더하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골프 전문 아나운서들의 생동감 있는 중계로 경기의 재미를 더했다. JTBC 골프의 박찬 아나운서와 KBS2TV의 김현영 아나운서가 콤비를 이뤄 사전에 참가 선수들을 인터뷰하고, 선수 개개인들의 기량과 임하는 각오를 비롯해 실감 나는 경기 중계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16강전, 8강전, 4강전 경기가 열리는 스크린 골프장에 대형 TV로 경기를 관람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참가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는 구성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본부도 응원하면서 실시간 라이브 퀴즈쇼를 통해 애플워치, 에어팟, 갤럭시 버즈, Bose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의 주인공이 되는 일석이조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16강전은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박빙의 승부 끝에 8강전 티켓은 ▲DA2, ▲IM2, ▲ICE1, ▲DA4, ▲Tax5·6, ▲DA7, ▲B&F3, ▲ICE2본부가 가져갔다. 특히 DA7 vs IM4는 연장 3홀 경기라는 혈투 끝에 DA7이 8강 티켓을 가져갔으며, DA3 vs DA4는 1홀 차이로 DA4가 8강에 올랐다. 한편, 16강전에서 DA4본부의 강민정 Manager는 홀인원을 기록했으며, DA2본부의 김민규 Analyst는 지난 조별 3차전에 이어 2회 연속 이글을 기록하며 멋진 기량을 뽐냈다.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그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5월 19일에 열린 8강전에서는 ▲DA2, ▲DA4, ▲Tax5·6, ▲B&F3본부가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DA2 vs IM2의 경기에서는 DA2가, B&F3 vs ICE2의 경기는 1홀 차이로 B&F3이 승리를 가져갔다.



최종 우승을 결정 짓고 기쁨의 환호를 보이고 있는 오영빈 Director와 최민규 Manager의 모습



16강, 8강, 4강의 해설을 맡은 JTBC 골프의 박찬 아나운서와 KBS2TV의 김현영 아나운서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한 경기를 앞둔, 5월 24일에는 4강전이 열렸다. 4강 경기에 앞서 속 시원한 한판 승부, 장타왕을 가리는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다.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은 4차 시도를 거쳐 가장 긴 비거리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로, 예선 결과 비거리가 낮은 순서부터 경기를 진행했다. 결승인 만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으며, “응원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나이스!” 등 실시간 채팅창에는 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여성 부문 경기 중에는 차지혜 Manager와 이경은 S.Manager가 191.9M로 동일 거리를 기록해, 서든데스로 다시 한번 1위 승자를 가렸다. 그 결과 차지혜 Manager가 203.8M를 기록하며 여성 부문 장타왕 1위에 올랐다. 이어 이경은 S.Manager가 198.2M로 2위를, 윤혜진 S.Senior가 182.2M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남성 부문에서는 두 번째 순서로 대회에 나선 IM4본부의 박재훈 이사가 278.2M로 시원한 장타를 선보이며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이어서 김형민 Director가 273.7M로 2위를, 최진영 Director가 271.6M로 3위를 기록했다.

롱드라이브 결승 대회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에 4강 경기가 펼쳐졌다.

결승전을 향한 막바지 승부인지라, 더욱 치열했다. DA Function이 서로 맞붙게 된 DA4 vs DA2 경기에서는 3홀을 앞선 DA2본부가 승리를 가져가며 먼저 결승전에 안착했다. 반면 Tax5·6 vs B&F3은 연장전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 끝에 Tax5·6본부가 결승의 자리에 올랐다.

○ **초대 챔피언은 ‘Tax5·6’본부!
준우승 DA2, 3위 DA4, 4위 B&F3로
대회 마무리**

드디어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초대 우승 팀이 결정되는 대망의 결승전이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여주의 세라지오 골프 클럽에서 열렸다. 3, 4위전을 펼치는 DA4 vs B&F3, 그리고 결승전에서 만난 Tax 5·6 vs DA2는 만만의 준비 끝에 필드 경기에 나섰다. 경기 스코어는 실시간



으로 카카오톡 챔피언십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결승 경기는 DA2의 차지
 해 Manager의 과감한 드라이버샷으로 시작됐다. 참가 선수들의 설렘과
 긴장감이 감도는 중 Tax5·6의 대표 선수로 나선 오영빈 Director와 최민
 규 Manager는 실력을 여과 없이 발휘하며 1홀부터 UP을 기록, DA2본부를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4, 5홀에서 DA2 차지해 Manage와 김민규
 S.Manager가 무승부를 이뤄냈다. 하지만, Tax 5·6가 다시 7홀부터 기세를
 몰아가더니 DA2본부를 상대로 8홀을 앞서며 6홀 남은 시점에서 우승 자
 리를 선점했다.

3, 4위전은 DA4 vs B&F3가 첫 홀을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엇치락뒤치락
 하며, 접전 끝에 DA4본부가 3홀을 남겨둔 상황에서 4홀을 앞서며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제1회 챔피언십 대회의 초대 우승컵은 Tax 5·6본부가 들
 어 올리며 우승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DA2는 300만 원을, 3위 DA4는 200만 원을, 4위 B&F3은 100만
 원의 상품권을 가져갔다. 대회 5~16위팀에는 팀당 50만 원을, 17~32위팀
 에는 팀당 30만 원의 상품권을 증정했다.

한편, 이번 챔피언십에서는 골프를 즐기지 않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
 트를 마련해 보다 풍성한 시간을 선사했다. ‘포
 토존’ 이벤트에는 470명이, ‘롱드라이브 챔피언
 맞혀라’ 이벤트에는 1,459명이 참여했다. 특히,
 조별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된 ‘경기 승부를
 맞혀라’는 이벤트 참여 누적 인원 3,696명을 기
 록하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약 두 달여간 진행된 챔피언십 대회가 모두 마
 무리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법
 인 생활 속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첫 대
 회였고,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열린 임직원
 들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였다. 앞으로도 삼정
 KPMG는 People First를 추구하며 인재들이 존
 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하이라이트 영상 대공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특집 I

People First! 인재를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삼정KPMG에서 미래를 열어주세요!



인재양성소!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 지원

입사와 동시에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을 통해 Professional Auditor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Learning Track을 3년간 스스로 설계하게 된다. 3년간의 교육 과정 수료 후 선발된 우수자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우수자 시상식 및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신입 회계사 입문 교육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한

본부 이동제도 & 해외 파견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해 본부이동 제도 'New Challenge Program(NCP)'을 매년 1회 실시 중이다. 또한, 해외 멤버 펌 및 Korea Desk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의 해외 업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KPMG Office에 30여 명이 파견 중이며, 파견 준비를 위한 해외 파견 대비반 운영 등 Global Opportunity 정책에 따라 해외 근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외 파견 기회 제공



영어 교육 & 해외 연수로 글로벌 역량 강화

KPMG Global에서 채택한 글로벌 교육기업 EF가 제공하는 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입사 시 3개월(10~12월), 1년 차에는 8개월(5~12월) 학습에 100% 영어 교육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감사 직무교육 성적과 한공회 연수 성적, 업무 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GEP 성적 우수자를 비롯해, S.Manager 승진자 전원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연수 지원



업계 최초 '재량근로제' 도입 & 시행

업계 최초로 법인의 공동근로자 대표들과 유연근로제 도입 합의를 이끌어, 시행 중이다. 이에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과 금전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가양득! 가족친화 프로그램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을 찾아볼 때 선물 비용을 지원하는 '부모님을 뵙니다', 자녀의 학급에 간식을 제공하는 '엄마&아빠가 간다', 특별한 날 법인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리무진 서비스가 있다. 또한, '결혼 5주년 기념 선물', '초등학교 자녀 입학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인 '키즈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결혼 5주년 기념 선물



채용특집 I 삼정스토리

삼정KPMG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 신입 회계사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법인 입사를 희망하는 미래 삼정인을 위해 삼정KPMG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인재존중을 이뤄가는 삼정KPMG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삼정KPMG를 전격 탐구해보자.

‘스마트 오피스’로 자유롭고 스마트하게!

업무 공간의 혁신을 위해 2019년에는 GFC 8층을, 2020년에는 GFC 28층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했다. 이후 구성원들을 위한 최고의 업무 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GFC 내 삼정KPMG 업무 공간 전체를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오피스



소통과 재미 UP! 친목도모 프로그램

소통과 재미, 즐거움이 있는 문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타 본부원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식사 비용을 제공하는 ‘삼삼오오’, 동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Talk+Play+Love’ 등의 복지 제도는 물론, 여가 활동을 위한 ‘사내 동호회’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마라톤, 자전거, 트래킹, 댄스, 독서, 다이빙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상 속 재미를 위해 ‘삼정 KPMG 챔피언십’을 개최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



사내 동호회: 독서



휴게 라운지

‘휴게 라운지’ & 사내 식당 ‘정원’

구성원들이 심을 통해 재충전하도록 숲, 바다, 강, 하늘, 호수, 은하수 등 **층별로 휴게 라운지가 마련됐으며**, 매일 라운지에는 커피와 간식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사내 식당 ‘정원’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식대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 사랑나눔 실현

사랑나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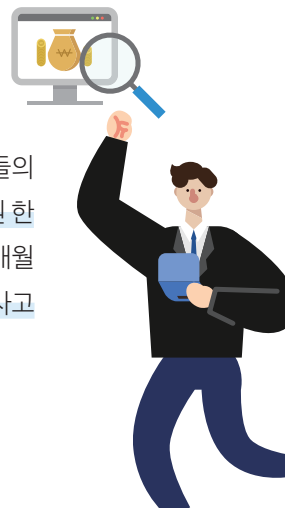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기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나눔

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파란행복’을 설립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중이다.

복지카드 및 단체 보험 혜택

BLSP(Beautiful Life in Samjong Program)는 구성원들의 자기계발, 문화&레저, 건강증진 등을 위해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로, 입사 3개월 이후부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재해사고와 질병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Z가 말하는 삼정KPMG는?

신입 회계사 공개 채용 시즌을 맞아, MZ 세대의 선배 회계사들이 삼정KPMG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삼정KPMG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해보자.



이소정 저는 1년 차 새내기인데요, 지난 여름 법인 설명회를 듣고 삼정인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GFC의 오피스 투어와 리크루팅 담당 선배님들이 준비해주신 선물, 그리고 소통의 시간까지 ‘아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해주시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왕이면 나를 더 원하는 곳에서 성장하고 싶어서 법인을 택하게 됐어요!

조예주 저는 입사 전에 현재 소속된 본부의 선배님께서 만족하며 법인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입사를 결심했어요. 무엇보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라고 전해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놀랐어요. 여러모로 제가 삼정KPMG Tax를 택한 것은 인생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우현 바야흐로 10년 전, 법인에 파트타임으로 입사했어요. 당시 파트타임 입사자임에도 정규 입사자들과 동일하게 해외 입사 연수도 다녀왔고, 인재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후 졸업 후, 정규 입사 면접을 위해 GFC를 방문한 순간 너무 편안하고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법인을 경험하고 느낀 좋은 점은?

역동적 성장

존중의 Together!

스마트하고 자유로운 공간들!

삼정 KPMG

채용 영상이 궁금하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 신입 회계사 공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우현 법인의 역동적인 성장 아닐까요? 10년 전 입사했을 때와 현재 삼정KPMG를 비교하면 업계 Big2라는 큰 성장을 이뤄왔다고 자부합니다.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법인으로 역동적인 법인의 발전과 함께 구성원들의 커리어 역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원한다면 삼정KPMG의 역동적인 모습과 원하는 바가 일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조예주 저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Together' 정신을 뽑고 싶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낮은 연차임에도 선배님들께서 매 업무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피드백을 주세요. 또한 멘토제도, Team Activity 등 본부원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활성화되었어요. 이 덕분에 다양한 분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같아요!

이소정 편하고 자유롭고, 스마트한 공간이 혁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법인은 스마트 오피스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생각해요. 자율 좌석제로 운영 중이며, 올해는 GFC 내 법인의 모든 업무 공간이 스마트 오피스로 변화될 예정이에요. 복장 역시 자유로워서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울러, 강남의 중심인 역삼에 위치하여 카페와 식당, 은행 등 여러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 이죠! 입사하시면 맛집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하하.

미래의 삼정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소정 와~! 그동안 수험생활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삼정KPMG에 오셔서 리크루팅, 동기 MT, 각종 동호회, 다양한 활동과 함께 즐거운 회사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조예주 저 역시도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만큼 입사 전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정KPMG의 어떤 Function을 택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Tax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Tax로 오셔서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이우현 제가 10년 동안 회계법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히 생각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닌, 누구와 일하는가?' 였어요. 좋은 선배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후배들을 만나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People First를 추구하는 삼정KPMG에서 좋은 사람들과 성장을 꿈 꾸시기 바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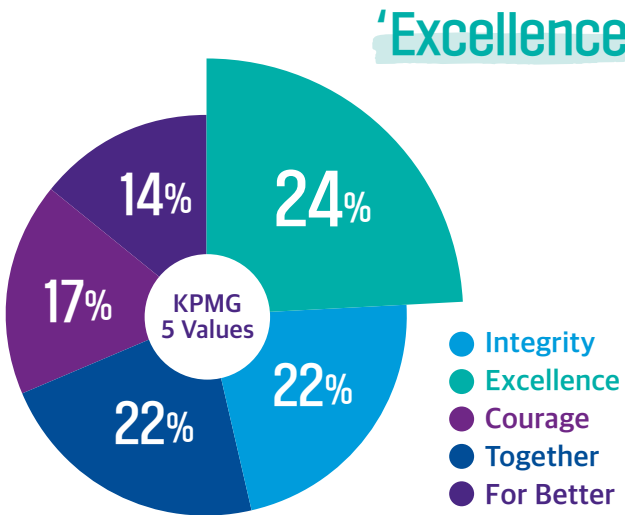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삼정인에게 '진심'은 어떤 의미일까?

삼정인들에게 '진심'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진심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무엇으로 꼽았을까?

'KPMG Story'에서는 FY22를 시작하며
삼정인들에게 '진심'에 대한 의미와 이를
위한 KPMG 5 Values 중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본다.

진심을 위해 실천하는 가치는?



* 복수 응답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혹은 무언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진심에 대해 정의 내린 것이다. 이처럼 진심은 각자의 삶의 해석이고, 본인들만의 바람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삼정인들은 본인만의 진심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

이벤트 결과 KPMG 5 Values 중 'Excellence'가 24%를 기록, 많은 삼정인들이 진심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진심을 위해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해 가고, 노력하는 삼정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목적이 아닌 대상 자체로 바라보는 것!



지동준 Associate (CM2)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나 대상 자체를 바라보며 진솔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영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진심을 담아 사람들을 대하고 싶고, 저 역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저만의 진심을 위해 올바른 방향(Integrity)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Together), 보다 나은 사회(For Better)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



박애리 S.Manager (B&F3)

저는 과거나 미래의 상황을 따지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혹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을 진심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진심을 위해 올바른 일(Integrity)을 하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에게(Together)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진심을 위해 주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유지하되,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마음



양지원 Associate (IM4)

저에게 진심이란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2년 차 등록시험 공부에 '진심'입니다. 진심을 꼭꼭 눌러 담아 공부해서 시험에도 또 앞으로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상대를 대할 때도 자신감(Courage)이 더욱 생기는 것 같아요. 적당히 무마한 조서, 마음속에 묻는 해결되지 못한 이슈와 같은 반쪽짜리 진심을 만들지 않도록 역량(Excellence)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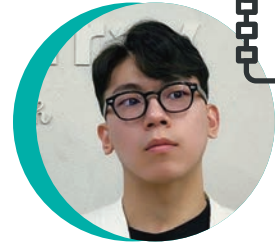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솔직한 것



조아영 Manager (Tax5)

제가 한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며 보여준 마음이 진심이라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누구보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합니다. 앞으로도 진실된 마음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Together)하며, 올바른 행동(Integrity)으로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되고 변하지 않은 마음



정다운 Analyst (Deal Advisory2)

저는 거짓 없이 참되고 변하지 않은 마음이 진심이라 생각해요. 이러한 제 진심은 무엇일까 떠올려보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팀'에 진심이더라고요. 이 마음을 지켜 가기 위해 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Integrity) 업무에 임하고, 팀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Excellence), 팀원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업(Together)하고 싶어요.

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



심종선 Director (SCG)

'진심이 무엇일까?' 이번 기회에 고민해 봤어요. 저는 '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이라는 생각을 통해, 요즘 제 진심은 '고객의 성공'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객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됐어요. 필요한 옳은 일(Integrity)을 찾고, 당장은 불가능할지라도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Excellence)하고, 두렵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습관(Courage)을 갖춰 나가려 합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은 아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겸손과 교만

관심은 관찰을 낳고 관찰은 관계를 낳는다. 동양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관계론이다. 관계(關係)란 세상의 본질이다. 통상 인연법으로 불리는 업보론 또한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진다. 인간에서 '간(間)'이란 글자는 바로 관계를 의미한다. 우간(牛間), 견간(犬間)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인생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인간관계다. 고 신영복 교수는 마지막 저서 『담론』에서 인간관계론의 최고 형태로서 겸손에 대해 설명한다. “주역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관계론은 성찰, 겸손, 절제, 미완성, 변방입니다. 앞의 네 가지의 덕목은 그것이 변방에 처할 때 최고가 됩니다. 변방이 득위(得位)의 자리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단연 겸손(謙遜)입니다.”

감사가 하늘을 만나는 방법이라면, 겸손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다. 겸손(humility)의 어원은 인간의 본성인 흙을 뜻하는 라틴어 '휴머스'(humus)에서 유래한다. 한자로 보면, 겸(謙)은 말(言)을 많이 하거나 떠벌리지 않고 속으로 거뒀다는 모습으로 이것이 겸손의 출발임을 보여준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 자신을 낮추는 거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데 방점이 있다. 이

는 한비자의 '마른 연못의 뱀' 학택지사(涸澤之蛇) 고사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잘 나갈 때 겸손한 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90도 폴더 인사는 배신의 예비 행위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겸손의 어머니는 자신감이다. 내공이 없는 사람의 습관적인 고개 숙이기는 일종의 비굴이다. 그리 본다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驕慢)이 아니라 무지(無知)라고 할 수 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닥쳐올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는 어떤가? 경영학에서는 초우량기업의 자격을 관계의 품질(QoR: Quality of Relationships)로 따져서 평가한다. 요컨대, 위대한 직장(GWP: Great Workplace)이란 3가지 핵심관계, 즉 상사-업무-동료와의 관계가 우량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미국 포춘지가 발표하는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의 평가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상사와의 신뢰(Trust), 업무에 대한 자부심(Pride), 그리고 동료와의 즐거움(Fun)이 그것이다. 상사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자부심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며, 팀원들은 꼴도 보기 싫다면 출퇴근은 무의미한 상황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전쟁과 문명』에서 역사적으로 숭한 국가의 멸망 원인에 대해 '휴브리스(Hubris)'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왕이 자신의 권력에 도취한 나머지 신과 맞먹으려 했던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어 'hybris'에서 유래한 용어다. 역사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드문 이유는 자신만의 탁월성



(Arete)과 성취에 매료되어 대부분 교만이란 뒷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사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 영국 작가 No.2로 평가받는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에서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명문장을 탄생시켰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절대 목언을 지켜야 하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딱 한 가지 허용되는 말, 그리고 과거 로마의 전쟁 영웅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반드시 외쳐야 했던 이 말은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리더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겸허함이 깃들어 있다.

지금(Now) + 여기(Here)가 합쳐지면 'Nowhere'가 된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요절한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말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2 Partners’ Workshop’ 개최

삼정KPMG는 5월 26일~28일, 2박 3일간 ‘2022 Partners’ Workshop’을 개최했다. 제주도에
서 진행된 이번 파트너 워크숍은 파트너들 간 결속력을 다지고 법인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으
로 채워졌다. 이날 삼정KPMG 파트너들은 지난 FY2021 법인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쁨을 나누
고, FY2022 법인의 전략을 공유하고 나아가 Vision 2025 달성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
다. 또한 앞으로도 법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는 특별히 박문성 스포츠 해설가가 ‘승리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감사위원회(ACI) 저널 21호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감사위원회
(ACI) 저널 Vol. 21’을 발간했다. 이번 ACI 저널 21호에
서는 FY2021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와 그 시
사점을 담았으며,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FCPA 제
재를 받은 기업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회
계부정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에
대해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전영순 교수가, ‘여성 감사
위원의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와 제언’을 주제로 삼정
KPMG ACI Professor인 영남대 회계세무학과 문상혁
교수가 저널 기고에 참여했다. 한편, ACI 저널 21호는
삼정KPMG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Advanced Auditor Program(AAP)’ 개최



ACI 김유경 전무 youkyoungkim@kr.kpmg.com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5월 17일 제9회 Advanced Auditor Program (AAP)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은 2022년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0명의 감사(위원)와 함께했다. 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를 비롯해, 심정훈 상무, 이세권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활동 방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한편,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도입되었고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감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본 행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감사위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삼정KPMG-한국하니웰, 디지털 혁신·OT보안 사업 협력 MOU 체결



삼정KPMG와 한국하니웰은 지난 5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산업분야 디지털 혁신 및 제어시스템 신기술 연구 협력과 OT(산업운영기술) 보안 컨설팅 및 기술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OT 및 제어시스템(ICS) 관련 디지털혁신(DT)과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의 통제 및 보호기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산업표준 인증 및 규제 대응 등에 대해 협업하며, 디지털혁신 전략을 포함하여 디지털안전, OT보안 관련 컨설팅과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삼정포럼,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 주제로 김석동 前 금융위원장 강연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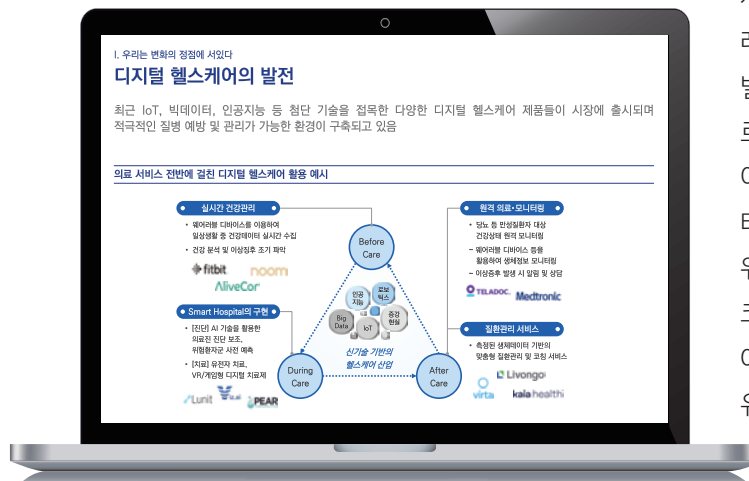


지난 5월 11일, 삼정포럼이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팀즈 라이브(Teams Live)와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총 323명의 임직원과 함께한 이번 포럼은 지평인문사회연구소 김석동 대표(前 금융위원회 위원장)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선진 경제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동력인 '한민족 DNA'를 설명하고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을 예측했다. 김석동 대표는 근면하고 우수한 인력과 선진 기술, 개방경제 국가 기반의 자본에서 한국의 성장 동력을 찾았다. 또한 역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운용과 남북통일을 통해 한국이 2022년 세계 GDP 순위 9위를, 2034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6위 국가로 부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한민족 DNA'의 긍지를 일깨웠다.

'알쓸산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살펴봐

경제, 산업별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을 탐험해 보는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가 지난 5월 19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팀즈 라이브(Teams Live)로 열렸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주제로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진된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변화를 공유하고, 글로벌 선진 기업이 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 주소와 문

제점을 짚고,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대면 의료 강자로 떠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종 간 또는 시니어 타운과의 협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나눔]

**“삼성인과 함께하는 비대면 봉사 및
취약계층 위한 지원사업 펼쳐”**

환경 팝업북 제작 봉사 진행

삼성KPMG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팝업북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아동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배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제로 한 팝업북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임직원 및 가족들이 제작한 팝업북은 서울시내 아동기관에 기부된다. 총 106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이번 봉사에 함께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저소득 가정에 의료·주거비 지원

삼성KPMG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주거비를 지원한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의료,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법정 지원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위기, 긴급 상황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틈새 가정 또한 포함된다. 대상자에는 관리비, 임대료, 가스, 전기 요금 등의 주거지원금이나 치료, 입원비에 해당하는 의료지원금이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될 예정이다.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 자립 지원

삼성KPMG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함께 자립이 임박한 그룹홈 거주 청소년에게 전문코치를 1:1로 매칭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진행될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의 대상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보호연장자 10명으로, 보호연장자는 대학진학, 취업훈련, 혹은 사정 상의 이유로 보호가 연장된 학생이다. 학생들에게는 1:1 맞춤형 자립코칭(10회), 양육자-코치사 평가회의(2회), 사전-사후 자립준비 척도 검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성KPMG 아카데미



삼성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성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성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